

완도,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시동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 방문...‘치유 관광’ 협력
신우철 군수 “역사적 인연...문화관광 네트워크 확대”

완도군이 지역 농수특산품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내놔.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이 최근 완도를 방문해 우호 교류와 해양치유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기업 대표단은 중국 후베이성 경제, 관광, 무역 분야 기업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완도의 해양치유와 문화 관광 등을 체험하기 위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먼저 완도타워와 이순신 기념관 등 주요 관광지, 전복·해조류 가공 시설을 둘러보고,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전복 따기, 전복 김밥 만들기 등 체험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완도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 내 급증하는 웰니스 관

광 수요와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치유관광 공동 상품 개발, 문화 관광단 교류, 완도 치유관광 홍보·마케팅, 수산 식품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군은 팸투어를 계기로 후베이성과의 교류·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은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의 역사적 인연이 깊은 곳이다”며 “앞으로 중국과의 문화 관광 네트워크를 확대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국 대표단 관계자는 “완도는 해양환경이 우수함은 물론 관광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치유 관광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며 “향후 기업,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해 공동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이 최근 완도를 방문해 우호 교류와 해양치유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이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한 모습.

신안 신의면 가락공원 ‘황토맨발길’ 개장

주변 애기동백숲 등 휴식형 치유공간 조성

신안군은 최근 신의면 ‘가락공원’ 일원에 황토맨발길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개장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황토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산책로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맨발황토길과 애기동백숲이 어우러진 이곳은 도시민과 지역 주민이 사계절 자연 속을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휴식형 치유공간으로 조성됐다.

황토길을 걷는 이용객들은 발바닥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붉은 꽃망울을 피우는 애기동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황토맨발길은 길이 100m, 폭 2.5m 규모이며, 천연 황토로 조성된 맨발길과 함께 세죽장, 정자 등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박항단 군 신의면장은 “면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만끽하며 함께 웃고 희망을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형 공원을 꾸준히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해남군 생활체육·청소년복지 한 곳서 해결

구교체육관 개관...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해남군이 해남읍 구교리에 조성한 해남구교체육관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신축아파트가 밀집하면서 해남읍내 최대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구교리 일원에 실내 체육이 가능한 스포츠 기반시설이 마련되면서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마케팅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해남구교체육관은 지상 1층 1920㎡ 규모의 실내 체육관과 주차장 22면을 갖추고 있다.

고 있다. 배구·농구 등 구기종목을 중심으로 스포츠 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운영도 가능하다.

쾌적한 실내 환경과 다양한 종목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동계 전지훈련팀의 훈련 예약도 이어지고 있다.

구교리 일원에서 열리는 지역 스포츠 문화행사, 주민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해남구교체육관에는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이전해 개소했다. 청소년 전용 상담 공간으로, 연면적 1067㎡ 지상 2층 규모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집단상담과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1층은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청소년을 위한 휴게실, 프로그램실, 교육실이 갖추어져 있고, 2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밝은 조명으로 야간 도로 안전해졌어요”

영암군, 교차로 조명타워·횡단보도 투광등 확대

영암군은 밤길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 안전을 위해 조도 개선 사업으로 도로 교차로 조명타워,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야간 조도를 높여 어두운 구간을 줄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교차로 조명타워는 지난해 삼호읍 용당 교차로 1기 설치를 시작으로 최근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입구와 전남도농업박람회 교차로에도 조명타워와 투광등 설치를 마쳤다.

영암군이 설치한 24m 높이의 교차로 조명타워는 기존 가로등의 밝기 10~30lx보다 최대 20배인 212lx 높은 조도로 교차로 전체를 고르게 비춰준다.

군민들은 지역 주요 도로와 관광지를 잇는 교차로가 환해지면서 야간 이동이 더 안전해졌다는 평가다.

횡단보도 투광등은 지난해 18곳 설치에 이어 올해는 보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중심으로 21곳에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목포, 장애인일자리사업 시행
10일까지 참여자 376명 모집

목포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76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취업 취약계층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기준)이다. 사업 운영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는 목포시가 직접 수행하며, 64명을 공공·복지시설에 배치해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복지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는 7개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선발해 지역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활동,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이승만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모형을 확충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37년 기술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특수벨트 가공전문

오양물산



·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34-26(장덕동) · 제2공장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125(하남동)
· Tel : 062)953-0006 · Fax : 062)955-0030 · URL : http://www.oyangms.com



오양물산주식회사
O-YANG PRODUCT CO., LTD.